

# 보건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자의 직종별 업무내용 비교분석

이 명 속  
대한산업보건협회

본 조사는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전문위원회가 '96년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자 직능별 매뉴얼』에서 제안한 표준업무내용에 대해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의 직능별 직무지침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결론 및 요약

1) 의사의 표준업무에 대한 수행율은 86.4%~31.8%, 향후기대율은 88.6%~43.2%였다. 주업무에 대한 수행율과 기대율은 각각 68.2%~25.0%, 63.6%~43.2%였고, 공통업무에 대한 수행율과 기대율은 70.5%~29.5%, 56.8%~34.1%로 나타났다. 의사의 주업무는 수행율보다 기대율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공통업무는 수행율보다 기대율이 더 낮게 나타나, 앞으로 의사의 주업무와 공통업무 수행방법에 대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간호사의 표준업무에 대한 수행율은 100.0%~25.0%, 향후기대율은 72.7%~34.1%였다. 주업무에 대한 수행율과 기대율은 각각 90.9%~54.5%, 68.2%~15.0%였고, 공통업무에 대한 수행율과 기대율은 각각 75.0%~25.0%, 59.1%~34.1%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업무수행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향후기대율은 주업무와 공통업무에서 모두 현재 수행율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수, 사업장방문주기, 업무량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장 보건관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 월1회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사업장 방문횟수를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산업위생사의 표준업무에 대한 현재수행율은 90.0%~61.3%, 향후기대율은 68.2%~47.7%였다. 주업무에 대한 수행율과 기대율은 84.1%~63.6%, 63.6%~54.5%였고, 공통업무에 대한 수행율과 기대율은 각각 65.9%~52.3%, 61.4%~43.2%로 나타났다. 산업위생사는 업무수행율에 비해 기대율이 대체적으로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종류, 업무난이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행정업무담당자의 표준업무에 대한 현재수행율은 63.6%~20.5%, 향후기대율은 56.8%~36.4%였다. 주업무의 수행율과 기대율은 각각 50.0%~20.5%, 50.0%~27.3%로 나타났다. 1개 사업장을 전담하고 있는 자체 보건관리자에 비해 한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맡아 방문관리하고 직종간에 다양한 업무협력이 필요한 보건관리대행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관리분야의 지원업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2. 제 언

보건관리대행사업장에 내실있는 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건관리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 특성에 관계없이 근로자수 100인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종별 사업장방문횟수를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보건관리대행인력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단계별 실무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3) 보건관리대행기관 특성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프로그램을 상품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진료 프로그램,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계속관리 프로그램, 응급의료체계 프로그램 운영 등.

4) 아울러 보건관리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보건관리대행수수료 현실화가 필수적이다.